

가미아리즈키(神在月): 신들이 있는 달

음력 10 월이면 일본 전국에서 수많은 신들이 이즈모로 모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신들은 일주일간 이즈모오야시로 신사의 주제신(主祭神, 신사의 중심이 되는 신)인 오쿠니누시와 함께 다음 해의 풍작 여부와 사람들 간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기를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신이 없는 달(神無月, 가미나즈키)이라고 부르는 반면, 이즈모에서는 신이 있는 달(神在月, 가미아리즈키)이라고 부릅니다.

이즈모에서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신들의 모임은 8세기 초에 기록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여러 서적에 수록된 이야기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서적들 또한 더 오래 전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니유즈리 신화에서는 오쿠니누시가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의 후손에게 땅을 물려주는 대신 훌륭한 신전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란, 신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관한 세계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오쿠니누시는 ‘인연 맺기’의 신이 되었습니다.

가미아리즈키 기간에 이즈모를 찾은 신들은 본전의 동쪽과 서쪽에 있는 말사(末社, 본사에 부속된 신사)에 머무릅니다. 신들은 이즈모오야시로 신사에서 서쪽으로 약 1km 떨어져 있는 이나사 해변 근처의 작은 신사에 매일 모여 다음 해의 인간 관계에 관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즈모오야시로와 신들의 땅의 제사 전시실(중양 로비에서 왼쪽)에는 신들의 복적이는 모임을 묘사한 목판화 우키요에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키요에는 19세기에 제작되었으며, 그림 중앙에 오쿠니누시가 앉아 있습니다. 다른 여러 신들이 나무패에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그것을 끈으로 묶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들이 짝을 지은 나무패를 오쿠니누시에게 보여주고 허락을 구하면, 오쿠니누시가 짝지어진 두 사람의 운명을 확인합니다.